

[2019년 9월 6일 정책교육실 세미나]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들 I: 마르크스에서 하이에크까지

던컨 폴리

Duncan Foley, Socialist Alternatives to Capitalism I: Marx to Hayek, Working Paper 05/2017, Department of Economics,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February 2017.

* 번역: 김성균, 김진현, 김태훈, 임필수, 조유리,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실)

1.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 설계에 대한 철학적 사색은 최소한 [기원전 5-4세기]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에 대한 급진적이고 낭만적인 대응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발생기 산업혁명, 사회적·정치적 '선'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던 종교의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추, 부르주아 혁명으로 촉발된 대중 정치의 거대한 에너지, 계몽주의 정치경제학 이론과 정치 이론은 기존 사회 제도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미래에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사색이 부상하도록 촉진했다.

이 혁명적 담론 중에서 중요하고도 끈질기게 존재한 한 계보는 산업혁명이 촉발했으며 (아직 완전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미 발휘되고 있는 생산력의 증가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질적 빈곤과 생필품의 전반적인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사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윌리엄 고드윈과 같은 '완전화 가능주의자'(perfectibilists)는 (Foley, 2006의 2장을 보라)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킬 사회 제도의 합리적인 재구성을 지지했다. 그의 주장은 토마스 맬서스와 같은 인물로부터 지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맬서스는 인구 성장이 그러한 프로젝트의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수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다.

'실존하는'(really existing) 자본주의는 사회적 생산력의 거대한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물의 분배에 대해서는 변덕이 심했다. 산업 부문의 기업가는 부를 축적했다. 인구집단에서 주목할 만한 소수인 성장하는 '중간계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분업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과 안락을 제공하는 틈새를 찾았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자는 대체로 격렬한 일자리 경쟁에 내몰렸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히 제한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매우 극적이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경험하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특히 중간계급이) 사회적 생산과 소득분배를 더 합리적이고 평등주의적으로 조직하는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급진적' 운동은 부패한 국가체계의 정치적 개혁,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보편적 확장, 자유무역, 공화국 형태의 민족적 정치조직을 요구했으며, 또한 프랑스나 잉글랜드가 달성한 주요한 성취물을 요구했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성격을 띤 급진주의의 주변부에서, 합리적 [자원]할당과 평등한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라 산업적 분업을 재조직할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론적 저작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대안적인 방식으로 산업

생산을 조직하고자 한 지역 공동체라는 형태를 취하는 수많은 소규모 '실험'이 벌어졌다. 이러한 실험적 공동체들의 역사는 (이러한 실험 중 일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했다) [지역 공동체와 같은] 경제적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흡수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조직의 권력을 깨닫게 하는 유익한 교훈이다.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 고유한 논리를 따라가며 프롤레타리아화, 도시화, 세계화를 촉진하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놀라운 힘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험적 측면에서 큰 진전을 성취하지 못했다.

칼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은 프랑스 혁명이 남긴 미완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정치의 구도를 탈바꿈했고, 구체제(ancien régime)[앙시앵 레짐, 왕과 귀족의 전통적 지배체제] 토지소유자의 권력독점을 약화시켰고,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금융 부르주아의 힘을 보여주었다. 혁명적 시기에 속박이 풀린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추진력은 유럽 사회의 더 완벽한 변혁(transformation)을 지향했다. 계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노동자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가 성장 중이었고,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점점 더 조직을 결성하고 연합하였으며, 그러한 변혁 프로젝트를 위한 정치적 기초를 제공했다.

마르크스는 충분히 발전된 유물론적 역사이론을 들고 1840년대 유럽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역사이론은 착취적 사회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잉여생산을 계급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의 정치적 저작은 유럽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적 잉여생산물의 계급적 통제를 바꾸는 것을 강령의 주 내용으로 삼도록 설득한다는 (다소 돈키호테와 같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맹자는 이런 방향에서 얼마간 성공을 거두었다.** 즉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 정치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라는 문제, 산업자본주의가 창출한 부를 재분배를 통해 공유하는 메커니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럽 좌파 정치인들은 경제적 생산의 통제권을 자본가들로부터 정부관료로 이양시키는 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몇몇 용맹한 시도는 있었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으로 산산조각난 유럽의 폐허 속에서 그러한 시도가 벌어졌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혁명적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자신의 시대의 유럽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정하며 현실주의적인 분석에 기초를 두었다. 마르크스의 프로젝트에 담긴 경제적으로 급진적인 측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산업·금융자본가로부터 사회적 잉여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올 것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으로서 잉여 생산물을 통제할 것이지만 (집착하건대 이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간략히 언급한 방식, 즉 자가 착취를 의미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착취를 완전히 종식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지닐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사회주의에 '과학적'이라는 소인을 붙였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주의는 유럽 정치사를 계급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부터 등장했고, 또한 고전파 정치경제학에서 도출되었으며 널리 받아들여진 결론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사상에는 어떤 독창성이 존재하다. (또는, [현실의 노동자운동이나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관계에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 정치운동의 경제적 내용이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논리로부터 경제조직의 핵심으로서 사적 소유의 초월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수수께끼의 한쪽 편이 다른 편에 해답을 줄 것이라는 '미래상'(vision)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내가 주장했듯이 (Foley, 2006, 3장을 보라) 마르크스는 분업의 확장으로 인한 사용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즉 실질노동생산성]의 스미스적 증가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유지시키는 맬서스적 압력이 조합됨으로써 착취율이 무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았다.¹⁾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궤적은 순수한 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주로는 잠재적 생산물을 실현할 총수요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축적 궤적은 훨씬 더 폭발적인 정치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자본가라는 작은 소수가 노동자계급, 즉 매우 생산적이면서도 자신의 생산력이 낡은 결실을 거의 공유하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을 억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론적 예측에서 마르크스는 천재성을 보였지만, 어떤 이유로 혁명적인 유럽 노동자운동이 생산의 사회적 통제라는 강령을 채택할 것이냐는 의문은 상당히 더 도전적인 문제였다. 나는 2절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진화는 착취율의 끝없는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즉, 사용가치 노동생산성의 상승률과 대체로 동일한 임금의 사용가치 등가물[실질임금]의 상승률이라는 [혁명운동이 보기에] 불만족스럽지만 실현 가능한 타협이 이를 해결했다. 이런 패턴은 (물론 중단될 때도 있었지만)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패턴은 산업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한 길이라는 상당히 폭넓은 맥락에서, 유럽, 북미, 아시아에 걸쳐 확고히 나타났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1980년대 이후로 중위 실질임금은 불길하게도 노동생산성 상승률만큼 상승하기를 멈추었다. 사실 중위 실질임금은 정체되었다.

마르크스는 임금의 일반적인 상승이 그의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본주의는 노동생산성 상승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만큼 훌륭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미스가 이미 인식했고 그 후 수많은 자본주의 변호론자들이 반복했던 주장이다.) 이 '낙수효과'(trickle-down)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기반으로 남아 있다. 마르크스는 착취율의 끝없는 증가(너무 많은 잉여가치)라는 미래상을 더 절묘하고 복잡한 이윤율 하락(자본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잉여가치)의 이론으로 대체했다. 마르크스는 토마스 마이클과 내가 '마르크스-편향적 기술 변화'라고 부르는 자본축적 패턴을 발견했는데, 이 패턴은 산업화를 겪은 광범위한 (하지만 모두는 아닌) 자본주의 경제에 적합했다.

2. 그룬트리세와 노동 화폐

유럽 노동자계급 운동이 생산의 사회화 강령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문제는 마르크스에게 평생의 도전이었다. 그는 헌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 정치지도자와 대면했는데, 그들의 경제강령은 신기원적인 변화(인류 전사(prehistory)[계급사회]의 종말)라는 마르크스의 미래상에 한참 못 미쳤다. 마르크스의 강령은 착취적 임금노동 관계뿐만 아니라 분업을 조직하는 상품형태와 화폐형태도 일소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품은 생각은 착취를 다소간 제거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분업을 조직하는 상품형태와 화폐형태를 유지한다

1) x 가 사용가치 노동생산성이고, w 가 임금의 사용가치 등가물[실질임금]이라면 착취율 e 는 다음과 같다. $e = (x - w)/w$. (Foley and Michl, 1999를 보라.) w 가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정체되는 반면 x 가 상승하면 착취율은 무제한적으로 상승한다. [역주] N : 고용된 노동자의 수, W : 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 Z : 이윤, X : 산출이라고 하자. 임금률 (노동자 일인당 임금) w 는 다음과 같다. $w = \frac{W}{N}$. 노동생산성 x 는 다음과 같다. $x = \frac{X}{N}$. 잉여가치율 e 는 다음과 같다. $e = \frac{Z}{W}$. $X = W + Z$ 이므로, 이 식을 변형하면 $e = \frac{X - W}{W} = \frac{(X - W)/N}{W/N} = \frac{x - w}{w}$.

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²⁾

그런 노선을 따르면서, 영향력 있던 하나의 제안은 화폐를 노동증서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리카도 사회주의자' 브레이와 그레이가 제안했다.) 마르크스는 그룬트리세[정치경제학 비판 요강](Marx 1973, 화폐에 관한 장)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화폐에 관한 방대한 장을 할애했다. 가치이론에 대한 리카도의 요약은 무비판적으로 읽을 경우, 노동 화폐 제안이 얼마간 타당해 보인다. 리카도는 경쟁이 '자연가격'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비례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가격은 장기적인 평균가격이며, 단기적으로 관찰되는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주변에서 변동한다.) 그러므로 상품교환은 평균적으로 [측정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을 (특수한 상품의 형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리카도는 화폐가 장막(veil)이라고 간주했는데, 그 장막은 교환의 매개로 기능하면서 분업이 작동되는 물질대사가 희미해 보이도록 가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지출한 노동시간과 동일하게 노동자에게 총생산물에 대한 청구권(노동증서)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단축하자는 주장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보면, 발행한 노동증서의 양이 지출된 노동, 또한 생산된 상품수량이 창출한 가치와 정확히 일치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중개가 제거되면, 이 시스템은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증서, 즉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실제로 지출한 노동시간에 대한 완전한 등가물을 받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에서 나타난 진화(스미스와 리카도 가치이론의 정교화)는 특히 이런 종류의 논거의 오류를 찾아내는 방향을 향했다. 그룬트리세의 검토에서 노동증서 계획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교환될 때만 사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이 된다는 관찰에 집중했다. 노동증서 계획의 오류는 사적 노동이 '즉각' 사회적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 주장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풀어서 분석하면, 마르크스가 지금도 여전히 신선한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상품교환이 상이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균등화할 때, 반복되는 생산순환을 거치면서 오직 평균적으로 균등화한다는 문제다. 특정 생산순환에서는 시장가격과 임금이 경쟁이 강제하는 자연 수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사적인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입증되려면 반드시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는 문제다. 세 번째는 자본가가 노동력으로부터 노동을 추출한다는 문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노동력은 생산과정에서 낭비되거나 무익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마지막 관찰은 결과적으로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노동자가 임금의 형태로 영유하지만, 임금노동 계약이 생산된 가치를 나누는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동력을 구매한 자본가들은 가치가 생산되든, 생산되지 않든 간에 임금을 지불한다.

이런 사고체계는 훗날 마르크스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보편적 등가물'이라고 부른 화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생산에서 노동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사적인 노동이며, 화폐라는 일차원적이며 순수하게 양적인 매개를 통해서만 추상적이고 사회적 노동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화폐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이 정리되면, 즉 사후적으로는 상품의 화폐가격이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노동에 나타나는 일관된 양과 평균적으로 일치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사후적 합리성을 노동증서 계획을 통해 사

2) 이러한 제안은 w 를 x 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착취율을 0으로 이끌기를 희망했다. [모든 잉여생산물을 노동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이윤을 제거한다.]

전적으로 달성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이런 분석을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노동증서를 발행하는 '은행'은 불가피하게도 개별 생산장소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생산과정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아야만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노동증서 계획]에 대한 비판의 말미에 그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은 궁금증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 마르크스는 노동증서 계획을 비판하면서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계획이 마르크스 자신이 옹호하는 일종의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그리고 추측컨대, '중앙집중화된') 생산조직을 함의할 것이라고 마무리 짓곤 했다.

3. 장기 이론가로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읽고 논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마르크스 당대와 훗날의 독자가 크게 관심을 둔 바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자가 잉여가치와 착취를 다룬 방식을 그가 어떻게 비판하느냐는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가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의 방법론과 결론을 얼마나 많이 수용했는지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 이 분야 중 하나는 마르크스가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의 '장기' 방법론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있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의 전형적인(paradigmatic) 문제는, 생산자의 자유로운 경제적 결정에 기초를 둔 탈집중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과정(market process)이 어떻게 고도로 발전된 분업으로 생산을 조직하는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매우 정교하고 통찰력 있으며, 마르크스가 그와 동일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 방법론을 검토할 때, 그 방법론은 추상적인 사고실험이지 현실세계 경제의 실제적 작동을 직접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생산자는 상이한 생산계통 간에 이동이 완벽히 자유롭지 않으며, 시장은 모든 생산자에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다. 나는 이 이론에 대해 Foley(2006, 1~3장)에서 논평했으며, 그 이론을 채택한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Foley(2011)에서 논평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가장 완벽한 논의는 『자본』 3권의 1-2부에서 볼 수 있다(Marx, 1981, 1부와 2부).

장기 방법론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하나는 사회적 노동시간은 다양한 생산활동에 분배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동역학이다. 재생산 가능한 상품의 시장 가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장기 방법론은 여러 부문에 걸친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운동이 (마르크스가 '생산가격'이라 불렀던) '자연가격' 주변으로 [시장가격을] '중력으로 끌어옴'으로써 시장가격을 규제한다고 주장한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만약 특정 상품 유형의 시장가격이 오랫동안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상품의 생산자는 다른 상품의 생산자에 대해 분명히 감지되는 얼마간의 순 이익(advantage)을 누릴 것이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생산자는 [시장가격이 높은 상품 유형의]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는 그 부문의 평균 시장가격을 낮추는 경향을 낳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시장가격을 중력으로 끌어오는 자연가격은 각 생산부문의 생산자가 감지하는 이익을 균등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을 단순화하는 하나의 판본은 상품생산에서 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오직 중요한 측면은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는 상품의 자연가격이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은 생산을 사회적 수요에 일치시키기

위해 생산적 노동의 사회적 배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장기 방법론은 상품가격에 관한 이론이자 사회적 노동의 할당에 관한 이론이다.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영유되었을 때, 생산자의 생산부문간 이동은 최고의 이윤율을 추구하는 자본가에 의해 규제될 것이므로, 따라서 자연가격은 이윤율을 균등화하는 경향을 낳는다. 이 상황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다양한 생산부문에서 잉여가치율 또는 착취율을 균등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한다. (Cogliano, 2010).)

상품생산에 대한 장기 분석은 여러 주목할 만한 함의를 준다. 사회주의라는 문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기 방법론의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즉 상품생산이란 혼돈스럽고 탈집중적인 방식을 통해 생산적 자원의 사회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따라서 그러한 과정은 결코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 복잡계 이론의 언어로 말하면,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의 장기 방법론은 상품생산이 적응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상향식' 시스템이라고 간주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관점을 매우 철저히 이해했으며,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성격을 근거로 상품생산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사실 그런 관점을 활용했다.** 우리는 노동증서 계획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과, 『자본』 3권의 1, 2부가 되는 원고 사이에서 마르크스의 관점이 일관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임금노동 계약을 통한 착취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상품교환과 화폐**라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회주의가 상품생산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시사한다.] [즉 마르크스는 임금노동뿐 아니라 상품교환과 화폐가 소멸해야 한다고 간주했다.] 상품 형태에 대한 마르크스의 일관적인 비판은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데, 그러한 비판은 소외에 대한 초기 에세이에서부터 '상품 물신숭배'를 다룬 『자본』 1권 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진다.

마르크스는 생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미래상을 품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 미래상은 우리가 이제 명명하고자 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top-down) 힘과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bottom-up) 힘 중에 어떤 것에 기초해 있었을까?

4.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마르크스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논고는 『고타강령 비판』(Marx, 1970)이다. 이는 독일사회민주당이라는 형태로 되살아난 통일적 노동자운동을 위한 강령 초안에 대해 마르크스가 1875년에 쓴 논평이다. (더 검토하고자 한다면 Foley, 2006의 3장을 보라.)

사회주의 사회의 조직에 관한 견해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이렇게 응답했다. 즉, 그러한 질문은 실제로 그 문제에 역사적으로 직면한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짐작하건대 사회주의적 제도를 수립하는 혁명운동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신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거의 이뤄내지 못한 후세대에게는 실망스러운 입장이다.

『고타강령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건설을 향하는 두 '단계'를 그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긴 산고를 겪은 후 막 등장하게 될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빼어나게 상황을 묘사한다. 즉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을 받는다. (나머지는 투자, 교육, 행정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유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원은 잉여가치에서 조달된다.) **핵심적인 차**

이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생산물은 잉여가치의 형태로 자본가계급이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영유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잉여생산물이 어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영유된다. 마르크스는 생산의 사회적 조직에 대해 명시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나, 우리는 노동자가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고, 화폐 형태로 보수를 지불받고, 이 화폐 수입으로 생산물을 구입한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논평을 할 때, 자신이 단호하게 현실주의적인 '경제학적'(economistic) 입장을, 즉 자원의 제약을 인정하며 사회적 상충관계를 조건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대변한다고 제시한 점은 흥미롭다.

상품생산이 사회적 노동의 배분과 가격, 양자를 규제한다는 사실을 마르크스가 명백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구절들에서 사회적 생산, 배분 또는 분배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쟁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내가 보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상품생산의 어떤 요소들, 예를 들어 판매를 위한 경쟁과 같은 요소가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와 공존하는 '시장 사회주의' 제도를 마르크스가 고려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검토하기 위해 저술한 『고타강령 비판』의 표현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검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백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을 노예화하는 분업에 대한 종속과,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나서, 노동이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고 난 후, 개인의 다방면에 걸친 발전과 함께 생산력도 증가하고, 협동적인 부의 모든 수원지가 풍부히 흘러넘치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이 유명한 구절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노동의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토록 초점을 맞추면서, 생산의 사회적 조직이나 분업에 대한 규제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은] 생산의 조직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는 맥락에서 생산성의 고도화를 호소하는데, 이는 특히 [우리가 다루기에] 곤란하다. 즉, 협동적 부의 수원지는 1875년에 비해 현재 훨씬 더 풍부히 흘러넘치지만, 비자본주의적 [자원]할당이나 분배 시스템을 향한 정말 주목할 만한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정치군사적 경향에 따라 농성경제[완전히 고립된 경제]를 운영했다)이나 생산수단 사회화의 선행자로서 주식회사에 열광했는데, 이로부터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힌트는 기본 퍼즐을 해결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생산적 자원의 할당과 분배 시스템으로서 상품생산에 [내재한] 상향식 원리에 대해 그의 세대 중 누구 못지않게 잘 이해했지만, 그런 문제에 관해 [상품생산에] 필적하는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간략하게라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위한 기초로서 어떤 판본이든 간에 탈집중적이고 자발적인 생산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러한 생각은 상품생산과 화폐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혀 모호하지 않은 부정적인 논평과 충돌한다. 즉 마르크스는 상품생산과 화폐가 후진적으로 '무정부적'이며, '비이성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논평했다. 시장이 사회적 상호작용

이 이뤄지는 더 고도의 형태 또는 초월적 형태를 의미하며, 적어도 시장이 정보를 총합하는 민주적이며, 탈집중적인 사회적 방식을 [씩 틱을]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는 어떤 견해도 마르크스의 견해는 아니다.

5. 사회주의에 대한 집산주의적 분석

마르크스가 죽은 지 수년 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와 엔리코 바로네는 생산의 사회적 조직이라는 문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파레토와 바로네는 기술관료적 입장에서, 즉 분명히도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을 계급투쟁과 분리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저술에 임했다. 계급투쟁은 20세기 초년 동안 유럽사회를 갈가리 찢어 버릴 수 있는 위협을 가했다. 바로네는 생산의 사회적 통제라는 쟁점을 [자원]할당과 분배 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목적은 순수한 경쟁 자본주의 경제의 [자원]할당을 모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기본 아이디어는 임금, 이자율, 지대율을 포함하는 가격집합을 찾는 것인데, 이러한 가격집합에서 개별 기업의 한계비용은 실질적인 사회적 한계비용을 충실히 표현할 것이다. 그런 가격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은 사회적 효율(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원리적으로 이런 사회적 가격이 한계대체율(한계효용의 비율)과 일치하도록 재화가 가계 또는 개인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가계나 개인에게 소득 예산(income budget)을 제공하고 그들이 선호에 따라 소득 예산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을 최종 가계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정치적 문제로, 할당과정 외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훗날 폴 새뮤얼슨이 관찰했던 것처럼, 이런 설정에서 자본이 노동을 사용하든, 노동이 자본을 사용하든 간에, 아니면 아예 중앙 계획당국이 자본과 노동을 할당하든 간에,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즉, 중요한 목적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동등화한다는 원리와 지속적으로 일치하도록 생산적 자원과 최종생산물을 할당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소득 분배를 제외하면, 사회주의와 경쟁적 자본주의의 핵심은 동일한 할당 원리로 요약된다. 바로네의 작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사적 책략은 경제적 자원 할당이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 문제라는 단언이다. 또는, 이와 같은 말이지만, 경제정책의 관리는 소득 분배를 아마도 제외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한다는 단언이다. 이런 결론은 공학자의 사고방식에 알맞는데, 공학자는 경제학을 최적 설계와 최적 통제의 문제로 간주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복합적인 산업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바로네와 파레토의 사상은 실제 정치경제학에는 주변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뿐이지만, 경제이론의 발전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6. 현존 사회주의

물론 역사는 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 이슈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았다. 또한 20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을 목격했는데, 최소한 수사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의 잔해로부터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에 전념하고자 했다.³⁾ 1920년대에 볼셰비키는 두 가지

3) 소비에트 실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격렬하고 여전히 험악하기 때문에 단지 발생했던 일을 아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탐색에 흥미가 있는 독자는 다음의 저술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Carr (1985), Nove (1989), Ellman(1989).

실제적인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다. 아마도 덜 심각한 문제는 일상적인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였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후에 ‘발전’ 문제라고 불리게 된 것이었다. 즉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러시아 제국의 후진적이고,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농업경제에서 어떻게 생존 가능한 산업 경제로 이행하느냐는 문제였다. 특히 두 번째 과제는 오히려 점점 더 긴급해졌는데, 왜냐하면 서부전선에서 1차 세계대전의 대단원은 산업화된 자본주의 강대국이 점점 더 많은 장소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후진적인 러시아 경제의 군사적·정치적 취약성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소비에트의 지도부는 니콜라이 부하린 같이 주목할 만한 재능을 갖추고 사려 깊은 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소비에트는 백군과의 내전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 정치권력을 공고히 다지자마자 곧 일상적인 생산의 조직화 문제에 대한 실제적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신경제정책(NEP, 네프)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는 식량 생산을 포함해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을 허용하고, 실제로는 장려했다. 네프는 구조적으로 ‘혼합’ 경제를 창출했는데, 혼합 경제에서 대규모 민간부문이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기업과 공존했다. (네프는 덩 샤오핑이 주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선구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최근 들어서 나타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골격이었다.) 네프는 내전 이후 소비에트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성공했고, 네프 체제하에서 산출과 소득은 내전기의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 상당히 회복되었다. 국가가 에너지, 교통, 중화학공업,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의 감제고지(commanding heights)를 장악한다는 조건하에서, 레닌을 포함한 많은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무기한 연장되는 단계로서 네프라는 구조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

두 가지 상호 연결되고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이 전개된 사건이 네프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경제의 민간 상품생산 부문은 소득과 부에서 거대한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상당히 기본적인 법칙을 예증했다. 사회적 목적에 헌신한다는 일당 독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초기 부르주아의 등장은 볼셰비키의 협소한 정치적 지지 기반에 위협을 가했다. 두 번째, 네프는 구조적으로 농업 부문에 유리했으며, 특히 시장을 지향하는 소농 계층에게 유리했다. 그래서 네프는 농업과 산업 간에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경제성장 경로를 낳았다. 식품과 여타 농업생산물 가격이 산업생산품에 비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데, 이는 급속한 산업투자를 위해 농업의 잉여생산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했다. 부하린은 “소농의 말을 타고 사회주의로 향해 가자”고 결단을 내렸지만, 네프의 정책은 정치적으로 볼 때 폭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군사력을 통해서 농업 잉여를 동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붕괴했다. 이는 결국 [농업]집단화, 중앙계획, 그리고 1930년대 유혈이 낭자한 정치숙청으로 나아갔다. 부하린이 아니라 스탈린이 공산당 정치의 기름 장대(greasy pole)[최고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힘든 과정]의 최정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 스탈린은 안정적인 정치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도 무자비하고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동맹의 정치를 조작함으로써 최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1930년대 소비에트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는지, 특히 이 기간에 상향식 동학과 하향식 동학의 실제적 혼합이 무엇인지는 불명료한 채로 남아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앙계획 관료들이 중공업의 팽창에 초점을 맞춘 극단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상당히 결이 거칠게 수립된 계획이 이러한 체제하에 있는 소련 경제 생활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새로운 도시중심부로 모집된 새로운 산업군(industrial armies)에 대한 관리는 탈집중적인 지역적 임기응변

과 실험을 매우 많이 동반했다. 중앙계획 관료가 다수의 자원 그 자체를 실제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물의 부족과 산출물의 잉여에 직면한 지역 관리자들은 비공식 시장과 비슷하게 상호 간에 임시변통으로 [잉여의 거래를] 합의했다. 시장 근본주의자의 희망사항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시기의 자본주의 경제는 주어진 시장가격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정통교리로부터 종종 상당히 이탈했다. 이는 소비에트의 경험이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엄격하게 분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와의] 구분선을 긋기 어렵게 한다.

7. 사회주의 계산 논쟁

소련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동안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이하게도 헛된 시도였다), 서유럽 철학자들은 그 의미를 계속 해석해나갔다. 볼셰비키가 가하는 자극은 헝가리와 여타 유럽지역의 활동적인 혁명운동으로 넘쳐 나왔다. 1차 세계대전이 낳은 거대한 재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흔들었고, 전후 유럽국가의 정치 체제는 허약하고 심약했으며, 따라서 볼셰비즘과 국가주의의 요소들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오스트리아’ 학파는 칼 멩거가 기반을 세우고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가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에 가한 비판을 통해 강화되었는데, 그 학파는 보편적 경제법칙이 존재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었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보편적’ 경제법칙은 상품생산 법칙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 상품생산 법칙은 시장교환 논리의 기초가 된다.) 유럽의 정치엘리트는 사회주의적 노선에 따라 경제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생각에 추파를 던졌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에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중앙계획에 입각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von Mises, 1990.) 경제적 합리성을 달성하려면, [사회에] 제공되는 수백만 개의 구체적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시장청산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제스의 논거였다. 그가 주장했던 바, 이런 과업은 순전히 계산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중앙계획 메커니즘의 역량도 초과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미제스가 이러한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앨런 튜링과 다른 이들이 전자계산기의 창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자계산기는 이러한 규모의 문제를 실제로 다룰 수 있었다.)

오스카르 랑게와 아바 러너는 영리하게도 (아마도 지나치게 영리했다)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질문을 제기했다. (Lange 1948. Lerner, 1970.) 왜 사회주의 사회는 (바로네의 분석 방식에 따라) 기업의 사회주의적 관리자에게 자본주의적 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자본주의 상품사회를 모방할 수 없는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효율적 자원할당에 따른 (한계비용과 가격 간의) 신성한 일치를 발견할 수 없는가?

이는 기발한 질문이었지만, 후에 드러난 것처럼, 매우 위험한 변화였다. 시장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옹호하는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비교를 자원할당과 분배의 비교로 축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다른 어떤 유형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잠식했다. 사회주의 계산 논쟁의 이러한 단계는 자원할당 이론이 정치경제학의 중립적 영역이라는 관점을 정당화함으로써 일반균형이론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했다. 즉 중립적 영역의 전장에서 부르주아 과학자와 사회주의 과학자는 공존하며, 뒤르켐의 축복[다양한 변수들이 기능하는 바를 사회통계로 밝히는 연구경향]을 받으며 포퍼식 대화 [과학은 가설과 그 반례를 찾아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태의 전환은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의 특이한 구조를 설명하는데, 일반균형이론은 공허한 수학적 일반성을 추구하면서 신고전파의 핵심적인 비전을 포기한다. (이러한 주제에 관한 사례 깊은 탐색에 관해서는 Mandler, 1999를 보라.)

경제학 교리의 이러한 판본은 ‘후생경제학 제1기본정리와 제2기본정리’와 ‘존재증명정리’ 속에 소중히 안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리를 중심에 두고 20세기 후반에 주류 경제학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세계관을 구축했지만, 이러한 판본은 최종 시장배분이 거래의 경로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 (자세한 검토에 관해서는 Foley, 2010을 보라.)

후생경제학 제1기본정리는 외부성이 없는 조건에서 경쟁적 시장균형이 파레토 최적이라고 단언하는 자유방임의 언어로 일반적으로 표현된다. 이를 신비성을 덜어내어 표현하자면, 자유재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환할 자유가 있는 사적인 상품소유자들은, 모든 상품에 대한 그들의 사적인 유보가격[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지불한 용의가 있는 최대가격]이 모두 일치하는 사적인 교환 균형 집합에 근접하거나, 또는 균형 집합에 속하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것을 계속 거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 배후에 있는 추론은 간단하다. 즉, 만약 어떤 할당 상태에서 사적인 유보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호 이익이 된다고 행위자들이 간주하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거래가 수행될 것이다.)⁴⁾

제2기본정리는, 선호와 생산 집합이 한계대체율의 체감과 [단조증가]변환이라는 특징을 보일 때 (수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효용함수와 생산함수가 오목할 때), 어떤 파레토 최적 할당도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재분배를 지닌 경쟁적 시장균형이 된다는 주장으로 보통 표현된다. 이런 형태에서 제2기본정리는 필연적인 정치적 결론에 이른다. 즉 자본주의 상품생산도 원리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대안과 동일한 범위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옹호자들은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 하에서도 재분배라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하에서 자원의 재분배와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제2정리의 결함은 경쟁적 균형 할당의 경로가 그러한 균형을 이행하는 거래에 의존한다는 사실[경쟁적 균형 할당의 경로의존성]을 무시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만약 전지전능한 당국이 분배적 공평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에 자원소유권을 재할당한다면, 시장거래가 교환 균형 집합을 향하는 과정은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분배에서 추가적인 수평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수평적 불평등은 지식, 매력, 숙련과 같이 내재적인 특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닌 불평등을 말한다.] (시장이 산출하는 이런 불평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지전능한 당국이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적 할당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노동증서 은행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을 상기하라!)

하지만, 사회주의 계산 논쟁 전체에서 더 큰 오류는 한 사회에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가 유일한 문제라는 생각을 자기만족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언어로 말하자면, 대체로 이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게 ‘생산력’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비교를 이처럼 매우 추상적 수준에서 예지웁스-보울리 박스 안의 점들로 환원하는 것은 생산의 사회적 조직 형태와 무관한 ‘보편적’ 경제 ‘법칙’의 존재를 단언하는 단지 또 다른 방식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 집요하게 공격했다. 즉, 생산수단은 오직 사적 소유로서 영유[소유화]될 때에만 ‘자본’이 되며, 자연환경

4) 사적인 교환 균형 집합은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파레토 최적 존재하는 장소인데, 왜냐하면 외부성이 없을 때 모든 상품에 대한 사적인 유보가격은 사회적 한계편익, 한계비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의 자연적 생산능력은 오직 영유[소유화]될 때에만 '토지'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은, 우리가 노예노동을 말하는지, '자유로운' 임금노동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의 노동'을 말하는지에 따라 매우 상이한 범주를 가리킨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역사적인 사회적 선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바는 정확히도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빠진 것이다. 즉 [진정으로 중요한 바는] 사회적 관계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생산을 위해 자기 자신을 조직한다.

8. 하이에크가 지반을 바꾸다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미제스의 주장에 대한 랑게의 반격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아רכ메데스적인 직관이였다. (von Hayek, 1948은 이를 요약하는데, 특히 Essay IV, VII, VIII, IX를 보라.) 하이에크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기업의 관리자는 자본주의적 경쟁을 모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관리자는 생산·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투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관리자의 개인적 이익이 이윤극대화과 일치하는 '유인 부합적인'(incentive compatible) 체계를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려고 했다면,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했을 것이다. 네프와 덩 샤오핑을 상기하라!)

하지만 하이에크가 가한 비판의 함의는 시장 대 국가라는 싫증나는 대립을 뛰어 넘는다. 하이에크의 더 급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품생산은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존재론적 내용을 표현한다. 우리 각각은 불가피하게 세계의 상이한 한 측면만을 이해할 뿐이다. 그 결과로, 넓은 의미의 인간지식은 중앙집중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 전체 인구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조금씩의 지식을 어떻게든 재조립해야지만 사회적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합의의 일부로서만 자신의 개인적 지식을 사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면] 상품과 화폐가 없는 사회적 생산이라는 마르크스의 이야기는 하나의 판타지로 남을 운명에 처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생산을 적절하게 이해하면 그것은 곧 상품생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흐름은 오로지 상품교환을 통해서만 이끌어낼 수 있고 재조합될 수 있다.

하이에크의 통찰력은 컴퓨터와 인터넷, 주식시장과 함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이 물질적 생산과 분배의 신진대사라기보다는 정보의 교환이라는 주장이 점점 더 진실로 보인다. (다른 한편, 바로 이와 동일한 사람들이 여전히 음식을 먹고 주택에 살며 옷을 입고 차를 운전한다.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컴퓨터 코드의 영양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다.) 하이에크는 우리가 사회활동을 개념화하려는 노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대표하며, 이는 우리가 인간사회를 복잡하며 적응적인 체계로 간주하도록 이끈다.

하이에크의 사상에서 맹점은 분배 이슈에 대한 전적인 무시다. 물론 이것이 우연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맹점은 그의 이론이 지닌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함의인데, 그의 이론은 결과에 비해 과정에 특권을 부여한다. 하이에크가 보기에 시장(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상품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현시(revelation)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부산물로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정보 현시 과정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인간(humanity)은 언어나 사회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만큼이나 정보 현시로 정의되며, 물론 언어나 사회성 양자도 정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

다.

어떤 점에서는 하이에크의 개입이 우리를 고전파 정치경제학자들의 관점으로 복귀시킨다. 마르크스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권력을 탈취해서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변혁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스미스나 리카도는 상품생산이 복잡한 체계[복잡계]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관계에 대해 어떤 불편함도 표현하지 않았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저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그들은 상품생산이라는 구조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찾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아이디어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만큼이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밀접히 얽혀 있으며, 논증만으로 사회주의라는 아이디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거의 없을 듯하다. <끝>

참고자료

Carr, E. H. (1985).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W.W. Norton, New York.

Cogliano, J. (2010). Smiths perfect liberty and Marxs equalized rate of surplus-value. *Submitted*.

Ellman, M. (1989). *Socialist plan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 New York.

Foley, D. K. (2006). *Adam's Fallacy: A Guide to Economic The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Foley, D. K. (2010). What's wrong with the fundamental existence and welfare theorem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5:115-131.

Foley, D. K. (2011). The long-period method and Marx's theory of value. In Caspari, V., editor, *The Evolution of Economic Theory: Essays in Honour of Bertram Schefold*, pages 15-38. Routledge, Abington and New York.

Foley, D. K. and Michl, T. R. (1999). *Growth and Distrib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Lange, O. (1948).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Lerner, A. P. (1970). *Economics of control; principles of welfare economics*. A. M. Kelley, New York.

Mandler, M. M. (1999). *Dilemmas in Economic Theory: Persisting Foundational*

Problems in Micro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Marx, K. (1970).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In *Marx/Engels Selected Works*, volume 3, pages 13-30. Progress Publishers, Moscow. 1875.

Marx, K.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Penguin, Harmondsworth.

Marx, K. (1981). *Capital*, volume 3. Penguin Books, London and New York.[1894].

Nove, A. (1989).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Penguin Books,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 New York, N.Y., U.S.A.

von Hayek, F. (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von Mises, L. (1990).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Ludwig Von Mises Institute, Auburn University, Auburn, AL.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S. Adler.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들 II: 비엔나에서 샌타 페이까지

던컨 폴리

Duncan Foley, *Socialist Alternatives to Capitalism II: Vienna to Santa Fe*, Working Paper 06/2017, Department of Economics,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February 2017.

1. 하향식

바로네와 파레토는 정적(static) 경제균형을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주의적 할당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경쟁이 한계비용과 가격의 일치를 강제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1920-1930년대에 일군의 수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가 칼 멩거의 '비엔나 서클'로 결집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아브라함 왈드, 존 폰 노이만, 오스카르 모르겐슈타인이 포함되었다. 그들의 논의는 20세기 후반부에 경제이론을 지배한 경제학에 대한 수학적 접근법의 기초를 세웠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상보적 여분성'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가격이 음의 값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는 문제를 분명히 밝혔는데, 상보적 여분성 조건은 자원이 완전히 활용될 때만 0이 아닌 가격을 허용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낳은 한 가지 결과는, 자원의 경제적 할당 문제를 최적제어이론(optimal control theory)이라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 수학적 최적제어이론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동역학 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전형적인 사례는 방공포 문제인데, 방공포는 2차 세계대전기 전투에서 핵심적 측면이 되었다. 필립 미로스키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Mirowski, 2002) 방공포병(포병은 포탄이 폭격기 고도에 도달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폭격기가 있게 될 지점을 조준하고자 한다)과 폭격기 조종사(조종사는 비행기를 기동해서 포탄을 회피하려고 한다)의 결투는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타인의 제로섬 게임이론과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 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또한 이것은 현대 금융이론의 뿌리다. 현대금융이론에서 문제는 트레이더의 거래가 실제로 절정에 이를 때, 자산가격이 어디에 달할지를 예측하는 임무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상적 전통 중 하나는 기술관료적(technocratic) 관점을 취하는데, 즉 사회주의의 과제는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자원 할당과 생산물 분배를 정의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에 관한 하나의 '하향식'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에서 분업의 참가자는 (짐작하건대) 자애로우며, 중앙집중적인 사회통제 메커니즘에 자신의 자율성을 넘겨준다. 최적제어이론의 정교한 발전은, 임의적인 수의 생산된 재화에 대해 원리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시간과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이론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할당조건의 정밀한 특징을 수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하향식 사회주의라는] 이러한 비전을 지지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를 수립한다는 것은 곧 최적제어 문제의 해답을 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수학적 방법의 힘과, 자연과학에서 수학에 대한 신망으로 인해, 여러 지적인 사상가들은 최적제어 방법론의 궁극적인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조셉 슈페터(Shumpeter, 1942)는 사회적 생산에 대한 관료적 합리화가 불가피하게 밀려들어오고 있고, 이에 직면하여 자본주의적 기업가의 충동이 점점 더 쇠퇴하고 있는데, 자신이 기업가적 충동을 옹호하며 승산 없는 싸움을 했다고 본 듯하다.

하향식 최적제어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이 대단히 가속화되던 1930년대 동안에 다른 두 가

지 중요한 계기를 통해 추진력을 얻었다.

첫 번째는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표다 (Leontief, 1966). 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대략 십수 개 심지어 수백 개의 경제 부문에서) 부문 간 거래 데이터를 모아서 작성했다. 기술관료적 사회주의자가 보기에, 레온티에프의 투입산출표에서 조금만 더 도약하면 생산과 분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레온티에프의 방법은 무기생산 계획에서 발생한 현실적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는 앨런 튜링과 폰 노이만, 그 외 사람들에 의한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이었다. 디지털 컴퓨터는 증명론(proof theory)의 이론 수학, 암호해독의 조합론, 포병대·방공포·공중투하폭탄의 유도를 위한 장치들, 전자공학의 빠른 발전에서 나타난 흐름들이 수렴된 결과였다. 폰 미제스는 1930년대에 중앙 계획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자신있게 공격했는데, 시장 내 상호작용을 제외한다면, 경쟁적 시장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모든 방정식을 푸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기술관료적 사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자원의 할당을 최적제어 문제로 규정하는 정교한 수학적 표현, 정확히도 그러한 수학적 문제를 푸는 데 적용되는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 가장 기본적이지만 일반화될 수 있는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할당과 관련된 계산을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초창기 사회적 계획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지지자는 공상에 빠진 사회주의적 이상주의자들을 뛰어넘어 확대되었다. 핵폭탄 개발 사례처럼, 이러한 사회공학적 혁신은 전쟁수행 노력을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상, 사회공학과 사회계획화에서 나타난 혁신이 실제 전쟁수행에 끼친 누적적 영향은 핵폭탄 [그 자체의] 주변적 중요성을 훨씬 더 능가했다는 주장이 논증될 수도 있다.) 냉전이라는 편집증적 거울상 세계에서, 합리적인 계획화 제도의 확장은 길고도 불확실한 [냉전 세력 간] 투쟁에 비판적인 위력을 발휘하리라 여겨졌다.

아마도 하에이크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가하는 위협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노예의 길』을 저술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든 종류의 집단적 사회행동을 뭉뚱그려 일괴암적 “집산주의”라 했고, 집산주의가 개인적인 인간 자유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관료적인 중앙집중적 자원할당은 자본가들과 심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자본주의의 반격은 경제학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즉 로리 타시스의 케인즈주의적 교과서를 억압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고, 불쾌한 부분을 신중하게 제거한 폴 새뮤얼슨의 신고전파적 종합으로 [로리 타시스의 교과처를] 대체했고, 레온티에프의 연구 프로그램을 주변화하고 재정지원을 철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결국 그에 성공했다.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술관료적으로 중앙집중적이며 합리적인 자원할당을 실행한다는 ‘엄격한’ 하향식 프로그램은 1940년대 후반에 필시 최고수위선에 도달했을 테지만, [즉 그 후에는 약화되었지만,] 현재에도 정치경제학 사상과 정책담론에서 계속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상향식

신기하게도 최적제어이론의 수학과 열역학의 수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열역학은 다소 예상 밖으로 극히 성공적인 물리학 분과인데, 동역학적 방법으로 직접 공략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다룬다. 전형적인 사례는 지구 대기와 같은 확산기체에서 분자의 행동이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부피의 확산 기체는 막대한 수(대략 10^{23})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의 동역학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중앙계획화 사회주의에 대한 폰 미제스의 비판을 상기해보라.)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 통계학적 추론을 독창적으로 적용하면, 기체의 거시적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예측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기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분자 운동과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 열역학적 방법은 거대한 범위의 복잡계 현상들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결과는 확산 기체와 같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복잡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상호작용이 가스 분자들이 에너지를 교환하는 [분자 간] 충돌보다 더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상품매매라는 경우라면, 그 체계는 거시적으로 출현적이며 (emergent, 창발적이며), 적응적인 행동을 산출할 수 있다. 확산 기체와 같이 특이하게도 다루기 쉬운 사례를 제외하면, 복잡계의 이러한 출현적 특성은 오직 정밀도가 제한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다. **분업과 자본주의 경제는 복잡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Foley, 2003. Foley(ed.) and Peter S. Albin, 1998.) 사실, 내가 제시했던 것처럼,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상품 생산을 그러한 복잡계로 간주한다고 암시하면서 추론을 전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동안 상향식 자기조직화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 그러한 체계에는 개미 언덕, 벌집, 새 무리, 컴퓨터 네트워크, 신경회로망과 같은 자율학습 알고리즘, 자본주의 경제, 아마도 인간의 뇌, 그리고 다수의 다른 유사한 사례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향식 체계의 몇몇 특징은 체계론 사상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하향식 최적제어 체계와 비교해서, 상향식 자기조직화 체계는 더욱 ‘회복력이 높고’(resilient) ‘원기왕성한’(robust) 경향이 있다. 자기조직화 체계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의 작동이]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중요한 하부체계가 파괴되더라도, (어쩌면 질적으로 저하된 양식으로라도) 기능을 지속하곤 하며, 중요한 사례들을 보면, 그런 손상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하향식 체계는 상당한 ‘여유도’(redundancy)가 있어야 구축될 수 있는 반면, 핵심 요소의 [작동] 중단, 특히 체계의 최적제어라는 특성을 실현하는 피드백의 중단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시스템 설계 이론에서 여유도는 “정상 동작에 필요한 정도 이상의 여분의 장치/기능을 부가하여 안정성을 높인 것”을 말한다.]

상향식 자기조직화 체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특성은 그러한 체계가 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더라도 놀랍게도 적절히 작동하곤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미 언덕은 위치선정과 식량자원 탐색에서 놀랍도록 효율적이다.

또한 상향식 자기조직화 체계는 새로운 상황에서 고도의 적응력을 보인다. 최적제어 체계는 그것이 작동되도록 설계된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최적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기조직화 체계는 광범위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체계라도 견뎌 내고 생존할 수 있는 충격의 규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바로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상향식 체계가 지닌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즉,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제도는 심지어 전쟁, 혁명, 금융 붕괴가 초래한 파괴 이후에도 자신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자원 할당은 어느 정도 효율성에 근접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거대한 환경 변화에 직면했을 때 높은 적응력을 증명했다. (거대한 환경변화의 다수 사례, 예를 들어 세계인구의 증가, 기술혁신은 자본축적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경제가 복잡계라는 통찰력은 상품생산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상향식”으로, 즉 하이에크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러한 통찰력은 [자본주의와] 평행한 상향식 사회주의라는 미래상을 암시하는데, 이는 사적 영유와 생산물 교환과 상이한 어떤 제도적 구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주의다.

상향식 사회조직이라는 전망은 20세기 후반의 주요한 정치적 경향과 공명한다. ‘구좌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중앙집권화와 군대화(regimenting) 경향에 맞서 1960년대 ‘신좌파’ 운동은 탈중앙화, 참여, 개인적 자유와 표현의 정치적 최우선성을 요구하며 봉기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라는 현재 세계에 처한 좌파는 [개인]을 조직하는 정치제도[가 요구하는] 재미없고 의례적인 일보다는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이라는 미래상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낀다.

중앙집중적 조정이나 지도가 없는 자발성에 대한 이러한 열광은 좌파의 상이한 일부분들이 다양한 경제적 실험, 계획, 철학, 모델에 애착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은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를 아주 미소하게 수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혹은, 실제로는 상품체계 논리가 체계적 확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좌파 내에서 연중 내내 꽃피우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노동자 통제(workers' control)다. 이러한 비전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분업을 조직하는 상품-화폐라는 구조를 수용하되, 생산의 장소에서 생산의 조직자로서 자본가를 노동자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공동단체(collectives)나 협동조합(cooperatives)에 의해 소유되고, 노동자들은 자본을 임차하거나 차용하고, 그들은 경제학자가 상품생산에서 ‘잔여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를 구성한다. 노동자 통제는 자발성, 적응성, 회복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그 자체로부터 그러한 특징을 물려받은 결과다. 자본주의 기업처럼, 노동자 통제 기업은 사회적 변화, 진화에 따라 탈집중적 자원 재할당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신호에 응하여 설립되고 해산될 수 있다. 자본 할당 제도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도는 새로운 기업의 자유로운 설립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경쟁을 가능케 한다. 상품 생산자로서 노동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과 공존할 수 있고 (또한 경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내용물이 노동자 통제인 한,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변형하는 진화적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노동자 통제라는 비전은 상품생산과 화폐라는 광범위한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의 비전에서 출몰하는 많은 퍼즐을 해결한다.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 대부분에서 보조적인 부문으로서 기능하며, 특정한 환경에서는 심지어 번창했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 미국 중서부, 이탈리아와 여타 여러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럽 주요 경제의 하나인 유고슬라비아는 여러 해 동안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는 노동자 통제 형태에 전념했고,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대체로 이에 기초하여 기능했는데, 이러한 체계의 실제적 작동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한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했다. 경제 이론가들은 (예를 들어 Vanek, 1970) 노동자 통제 기업과 경제의 특징에 대한 엄밀한 분석들을 생산했다.

노동자 통제의 역사와 경험과 역사를 조사할 때 두드러지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경제 분석에 중심적이다. 즉 기업소득의 잔여청구권자로서 기업의 실제 노동자의 역할은 노동자 통제 기업이 고용[증대]에 반대하게 하는 편향이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노동자들은 기업의 잉여 수입에 대한 기존 노동자들의 청구권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노동자 계층별로 잉여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차등화하라는 압력을 발생시킨다. 노동자 통제 기업이 매우 성공적일 때, 그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자 간 위계제는 자본주의 기업의

위계제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기업 조직의 법률적인 형태와, 상이한 노동자계층의 잉여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청구권 간의 모순이 첨예해질 때, 노동자 통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유화되어서 전통적인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사실은, 특정한 환경에서 노동자 통제 기업이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지만, 노동자 통제 기업이 자본주의적 기업을 밀어내도록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은 어떤 경제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전통과 관행이 이런 생산조직을 선호하는 사회에서조차, 노동자통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부문으로 남았다.

생산의 조직자로서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상향식 대안 모델은 ‘오픈 소스’[공개된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 또는 ‘동료생산’(peer production)[개인들로 구성된 자기조직적 공동체에 의존하는 재화·서비스 생산방식] 운동이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고, 의약품 개발이나 유전자 기술과 같은 여타 유사한 영역 일부에서 일반화되었다. 동료 생산은 탈집중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생산적 자원을 조직한다.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관계자, 참여자로 구성된 집단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기여한다. TeX와 LaTeX라는 학술적·과학적 저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아파치 웹 서버, 리눅스 운영체제는 동료생산의 생산물이다. 동료생산을 통해 창조된 소프트웨어는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영리적이며 경쟁적인 생산물에 비해 충분히 더 훌륭하게, 더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하여 중요한 컴퓨터 기술 분야를 지배한다. 동료생산은 기본적으로 상품/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정교한 분업을 조직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다(심지어 더 우월하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사회적 생산의 보편적 모델로서 동료생산에는 몇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수반되는 자본은 인간노동의 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대체로 저렴하고, 이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그 자체는 상향식과 하향식 제도의 복잡한 혼합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공된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본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본업은 참여자들이 상품-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집세를 내고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한다. 동료생산의 참가자들은 더 변변치 않은 취미가처럼, 자신의 요구와 관심에 의해 추동될 뿐만 아니라, 성취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인정이라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동기를 얻는다. 실제로 동료생산에 참가하는 많은 ‘자원자’는 자본주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참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용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 상업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수의 동료생산 활동이 낳은 생산물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와 같이 경제학자가 ‘비경합재’라고 부르는 것인데,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한계비용은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에 비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만약 우리가 식품이나 섬유, 건설과 같은 부문으로 동료생산을 일반화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즉각적으로 많은 모순이 나타난다.

컴퓨터 능력의 폭발적인 증가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출현은 사회주의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과 꼭 마찬가지로 상향식 접근에서도 여러 문제를 잠재적으로 해결한다. 하이에크가 지적한 대로, 복잡한 사회적 분업을 조직하는 데 가장 중심적 쟁점은 정보다. (물론 이것만 쟁점은 아니다. 생산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인센티브와 조정 역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는 분업의 조직화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시장과 시장가격의 형성에 의존한다. 시장을 경시하거나 또는 시장을 완전히 없앤 사회주의 체

계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다른 정교한 탈집중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적어도, 강력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이용 가능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을 대체하여 기능하는 상호작용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비엔나 서클의 수학에서 유래한 최적통제 사회에 대한 하향식 비전은 열역학을 거쳐서, 샌타페이 연구소⁵⁾의 자기조직적이고 탈집중적인 사회 동역학 체계라는 상향식 비전으로 변모했다.

3. 우리가 사회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변증법적 부정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사회주의자가 싫어하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특징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는 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회주의자가] 싫어하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논의는 상당히 확산될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전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인종적, 민족적 차별은? 성적 억압은?) 우리의 사고에 집중하기 위해, 급진적인 경제 변화에 관한 사회주의적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을 열거해 보자. 즉 상품 생산과 불평등,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그리고 임금 노동과 착취.

3.1 상품생산과 불평등

원론적으로, 신고전주의 일반균형이론이 단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와 소득의 분배가 매우 평등주의적인 상품생산 체계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왈라스적 경제 모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할당상의 불평등은 오직 노동, 생산수단, 토지와 같은 생산자원의 소유권상의 불평등에서 발생할 뿐이다. 평등주의적 지향을 지닌 경제학자와 여타 사회과학

5) [역주] 샌타페이 연구소(일명 산타페 연구소)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 주의 외딴 도시 샌타페이(Santa Fe)의 수도원을 임대하여 세운 조그마한 연구소이다. 그러나 이 연구소에 쟁쟁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머레이 겔만(Murray Gell-Mann)과 필립 앤더슨(Phillip Anderson),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 수학자, 컴퓨터과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그리고 말총머리 대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의 목표는 자연과 아우르는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통 과학의 시각을 거부하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뛰어 들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아무도 종착역을 예측하지 못하는 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 초기 샌타페이 연구소의 설립이념에 따라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핵심 연구원은 복잡계 경제학의 브라이언 아서, 이론생물학의 스텐퍼트 코프만, 인공생명의 크리스 랭턴, 인공주식시장과 인공생태계의 존 홀랜드 등이다. 브라이언 아서는 아일랜드의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스텐퍼드 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였다. 그는 주류경제학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여러 가정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다. ... 아서는 복잡계경제학을 통하여 반대로 규모에 따른 수확 체증과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불안정성과 동역학, 인간의 인지활동을 중시하고 하이테크 산업 등 신시장금융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 코프만은 생명현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자체촉매 이론을 연구하였다. 자체촉매집합 'autocatalytic set'은 화학물질군이 서로 반응하여 다른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들 물질이 초기반응을 촉진하게 되면 생성된다. 이러한 화학물질 집합은 초기에 매우 미량이 존재하더라도 상호 촉진에 의하여 진화하여 전체 환경을 지배하게 되며 생명형성의 근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은 화학반응의 동역학에 대한 자세한 분석없이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샌타페이 연구소의 도인 파머, 노먼 패커드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리타오 배글리는 컴퓨터 인공화학계 모형을 통하여 자체촉매 집합의 발현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복잡계가 질서와 카오스의 경계인 '카오스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카오스의 가장자리 영역은 마치 생체계처럼 혁신성과 안정성, 경쟁과 변혁의 장을 제공하는 절묘한 균형점이다. (김승환, 「샌타페이 연구소의 이념과 활동」, <과학사상> 40호, 2002)

자가 품는 하나의 인기 있는 판타지는 생산자원의 소유권이 평등하게 분배된 탈중앙집중적 상품생산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는 공정성, 효율성, 개인의 자유라는 목표를 마법처럼 조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역사적으로 빈 상자라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더 잘 증명된 '규칙성'(regularities) 중 하나는 상품생산이 고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그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부[자산]의 분배와 어울린다는 것이다. 대체로 소득의 상위 1/5과 부의 상위 1/10은 상품생산사회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한다.

왜 이처럼 급격한 불평등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 (그러한 급격한 불평등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경험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유전적 자질에서부터 다르다. 경제적 결과에서의 이처럼 막대한 격차는 아마도 이러한 [유전적] 차이를 반영한다. 스포츠 스타의 높은 수입과 같이 매우 명징한 일부 사례는 이러한 통념에 믿음을 준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자가 인간사회를 숙고할 때, 선천적인 인간 재능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고 확실히도 스미스나 리카도 모두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자는 아니었다.) 관찰된 불평등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의문스러운 한 가지 이유는 인간 역량에 대한 독립적인 비경제적 측정치가 개인 사이에 상당히 작은 차이이자, 정규분포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생산체계가 어떻게 그 차이를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통계적 특성[정규분포]을 우리가 관찰하는 소득과 부에서의 극도로 편향된 지수분포, 멱승법 분포로 변형시키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부의 상속은 자원 소유권이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뤄지든, 교육이나 여타 사회적 우월성이라는 형태로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든 간에, 극도로 편향적인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또 다른 인기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혁명적 가치는 상속된 특권에 적대적이며, 상속에 의한 부의 집중을 매우 일관되게 지지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가족토지는 자손의 증가, 관리실패, 사치스러운 소비를 통해 보통 소멸된다. 오로지 상속에만 기초하여, 부와 소득의 극단적 집중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몇몇 유사 실험은 이러한 가설에 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동유럽 국가들에서 매우 핵심적인 국가 자산의 사유화는 평등주의적 원리에 따라 [주민에게] '바우처'나 주식을 분배하고, 수령자가 상품교환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청구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이의 청구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청구권의 소유권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속이라는 동학이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투기를 통해 고도로 집중되었다. 토지개혁과 기타 재분배 조치 후에 비슷한 결과가 흔히 나타난다. 이는 설사 특정 시점에 생산자원의 소유권을 완전히 균등화하는 것이 가설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부와 소득의 극도로 불평등한 분배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상품교환상의 강력한 균형 경향이 존재한다고 시사한다.

사실 이러한 균형 경향은 자유도가 높은 열역학 체계에서 관찰되며, 이는 지수분포, 멱승법 분포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교환과 같이 대규모이면서 탈중앙집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처럼 강력한 균형 경향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종할당이 오직 그 기저에 있는 생산자원 소유권의 분배를 반영할 뿐이라는 월라스의 정리는 모든 시장거래가 균형가격에서 이뤄진다는 부정확한 가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더 현실주의적 가정을 한다면, 즉 상품소유자가 균형가격의 결정을 향해 더듬어 가면서 매우 빈번하게 불균형 가격에서 교환한다고 가정한다면, 상품교환에 관한 추상적 모델은 편향적이고 매우 불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

배를 함의한다. (Foley, 2010)

이러한 고찰은 마르크스가 상품에 기반한 교환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선(reform)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변형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옳았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결론이 노동자 통제 기업과 같은 계획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나 (노동자통제 기업은 첨예한 불평등이 예견된다),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사회의 역사적 경험, 양자로부터 도출된다. 유고슬라비아 사회는 노동자 통제를 실행하는 동안 지역적, 계급적 불평등의 급격한 증거를 경험했다.

3.2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분석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면에서 자본주의의 특징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에서 ‘독점’ (이는 계급적 의미에서 독점이 지, 보통의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독점이 아니다), 즉 소수 자본가계급에 의한 생산수단 통제는 착취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는 충분조건은 아닌데, 착취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전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있어서 사적소유를 제거함으로써 ‘수탈자를 수탈’하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제거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예상 밖의 여러 복잡한 결과를 낳는다. 한 가지 질문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이윤)이 어떻게 되느냐다. 또 하나의 질문은 현존 또는 신규 생산기업은 생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수단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다. 세 번째, 관련된 질문은 희소한 생산수단을 경쟁적인 잠재적인 용도 사이에서 어떻게 할당하느냐다.

소비에트의 실험과 다양한 국가 사회주의의 일화로부터 얻은 경험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직접생산자에 대한 착취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소비에트의 경우에,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지배엘리트의 구성원을 한 편으로 하고, 직접생산자의 구성원을 다른 한 편으로 하여, 사회의 계급적 분할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 소련체계의 붕괴는 생산 자원의 ‘사적인’ 통제를 공식화함으로써 법률적인 관계를 실질적인 사회적 생산관계와 보조를 맞추게 하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압력이 낳은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소련의 붕괴는 법률적 관계가 실질적인 사회적 생산관계를 반영한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소비에트 노멘클라투라[임명직 고위관리]의 대부분이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 초창기 자본가계급으로 역사적으로 변신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에 손을 댈 때, 국유화된 기관은 종종 쇠퇴하는 산업에 속했는데, 이러한 산업에서 국유기업은 여하튼 이윤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일화에서 국유화의 동기는 사회적 계급 간의 이윤 재분배보다는 경쟁으로 위협받는 일자리의 보존인 경우가 더 흔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적절하나 여부는 방금 검토한 분배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생산자원의 소유권 분배가 평등하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체계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회적 결점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향식, 탈중앙집중적 사회주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또는 어느 정도건 간에 어떤 사적인 통제 유형은 새로운, 혹은 현존 생산기업이 생산수단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시되어야 할] 요책은 생산수단 시장이, 또는 심지어 어

면 물물교환 체계가 부의 집중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호소력 있는 아이디어는 생산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산수단에 대해서만 통제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강제하기 어렵다.)

3.3 임금노동과 착취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임금노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분석은 ‘노동력’과 ‘노동’의 구별에 기초를 둔다. ‘노동력’은 유용노동을 수행하고, 따라서 다른 투입물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노동’은 유용한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 능력의 실제적 지출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노동력과 노동의 구분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잉여가치의 원천을 분명히 해명한다. 평균적인 노동력의 가치, 즉 지불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은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보다 작다. 이 차이는 체계 전체에서 잉여가치의 원천이다. (잉여가치는 이윤, 지대, 이자,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가 착취를 제거한 방법으로서, 임금노동 형태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과 노동의 구분은 분업의 조직화에서 결정적인 쟁점을 가리킨다. 자본가는 유용한 생산적 노동이 결국에 결과물을 낸 것으로 입증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노동력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력에서 노동을 추출하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는 임금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양자를 수반한다. 역사적으로 임금노동 형태는 이러한 측면에서 충격적일 만큼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부분적으로는 기술변화의 결과로, 그러나 또한 높은 수준의 노동규율, 규칙성, 그리고 숙련 획득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는 시기 동안 막대하게 상승했다. 다수의 일자리 상황에서 노동력에서 노동을 추출하는 핵심 요소는 해고 위협이었다. 우리가 주인-대리인 상호작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게 된 것처럼 (예를 들어, Bowels, 2004를 보라), 자본가 고용주가 만약 노동자가 그 일자리를 잃는다면 [다른 곳에서 얻게 될] 예상 소득보다 더 많은 임금 프리미엄이나 지대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사회주의에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임금노동 형태에 내재적인 착취를 제거하면서도, 또한 임금노동 형태가 수행될 때 동반되는 노동규율과 동기부여라는 거대한 사회적 이익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냐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 딜레마가 ‘물질적, 도덕적 인센티브’라는 붉은 글씨[구호] 하에서 검토되었다.

사회적 생산관계의 심층적 변형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서 그와 평행하는 심층적 변형을 이끌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자본주의 제도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압도적인 곳에서도 사람들 자신은 상품생산 법칙을 완전히 내면화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환경을, 그들과 다른 사람의 아이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안녕을 걱정한다. 물론 자본가 자신은 해고 위협이라는 채찍 없이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 기준과 협력을 내면화하는 노동자를 높이 평가한다. (적어도 자신이 실제로 고용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 [즉 생산성 기준과 협력의 내면화]을 좋아한다. 비록 그 자본가가 자신의 경쟁사에 속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순수히 물질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을 아마도 더 선호할 수도 있지만.

[경쟁사에 속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협력을 내면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마치 사회주의 사회와 무관한 것처럼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너무 안이하다.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이 직면하는 이해충돌, 또는 도덕적 해이가 자본주의적-상품 생산과 매우 다를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사회주의적 생산자는 동료생산 사례처럼 일자리 상실의 두려움보다는 동료 사이의 긍정적인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더 동기를 얻을지도 모르지만, 부여될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자는 생산적 활동의 사회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대략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공상적인 결론

이 논의를 끝내기 위해, 나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어떤 대안에 대해 공상(fantasy)에 빠지는 호사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러한 실습에는 몇 가지 기본규칙이 있다.⁶⁾

이는 마르크스가 사회적 생산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변화시키는 [대안에 관한] 사색이다. 이러한 (매우 폭넓은) 범위의 쟁점에서 대안을 생각할 때, [기본규칙상] 나는 모든 사회적 문제(외교 정책, 종교, 교육, 정치 제도,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문화)를 고려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본 가정은 삶이 평상시처럼 계속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고, 가족을 이루고, 재생산하고, 나이를 먹고, 소비하고, 등등. [사회에는] 자연재해와 국내외 분쟁, 지역분열이나 기타 그와 비슷한 부류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복잡한 분업의 조직화 문제라는 결정적인 측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바라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복잡한 분업은 기술체계상 정교한 사회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데, 그러한 사회 유형은 포스트-산업 자본주의가 창출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와 경제적 안전을 지닌다.) 예를 들어, 어떤 가상의 로봇 노동력에 의해 창출된 사용가치가 보편적으로 풍요로운 체계를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따른 인간 사회생활의 눈부신 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나로서는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완전한 자급자족과 자기 재생산을 달성하는 대안적 체계를 가정함으로써 '이행'이라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내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판타지라는 대안은 '혼합' 경제라는 통념을 포함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혼합 경제에서는 상품적-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가 일부 부문이나 일부 지역에서 계속 지배적이다. 경제의 사회주의 부문은 다른 자본주의적-상품적 부문을 다루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나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자본주의적-상품적 사회적 관계와 무기한으로 공존하도록 한다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에 가장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혁명적" 변혁을 가정하는 것은 (닥쳐오거나 진행 중인 생태계의 위기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급진적 대안에 대한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깊은 적개심을 무시하는 것도 나에게는 마찬가지로 흥미 없는 일이다. 나는 대체로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를 통해 직업과 수입을 얻고, 다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교외 또는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생산관계를 변형할 수 있을지에 주로 관심이 있다.

내가 제안하는 특정한 판타지를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실습의 주된 기능

6) 이런 방식의 다른 논의에 대한 조사로는 Devine (2002)를 보라. (데이비드 코츠(David Kotz)는 친절히도 내가 이 책에 주목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Wight (2010)을 보라.

은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을 제시함으로써 변증법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종류의 실습에서 반대의견을 구체화할 때, 이런 저런 식으로 ‘인간 본성’을 들먹이는 것은 이런 실습의 정신을 벗어난다. 또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이 [사회주의적 판타지와] 아주 유사하며, 해결되지 않은 다수의 모순을 지닌다고 주장함으로써 [비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실습의 정신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상품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을 때에 비해 사회주의적 판타지에 처해 있을 때, 기회주의적 행위가 사회적이며 이타적인 행위와 혼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실,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타인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적어도 주변적으로는 재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들이 충분히 성숙했고, 다음과 같은 경제생활의 진실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의식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즉, 소비는 총합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생산에 의존하고, 사람들이 소비의 조건으로서 생산적으로 일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진실 말이다.

4.1 라이프넷

그러므로 대안적인 일군의 사회적 관계를 상상하자. 그러한 관계들을 나는 ‘라이프넷’(Lifenet)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상품 제도의 외부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구 영역 중 적어도 일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라이프넷 생산은 동료생산 기업을 통해 조직된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물질적 보상 없이 동료 생산 계획을 시작하거나 현존 동료생산 계획에 참여한다. 이들 기업의 생산물은 라이프넷 분배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체계의 참여자에게 자유롭게 제공된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자유롭게 출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라이프넷 산출물의 사용자나 소비자가 돈을 위해서 그 산출물을 상품으로서 재판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의 대안적 체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이프넷 기업의 참여자는 중앙 라이프넷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존되는 라이프넷 계좌를 지닌다. 라이프넷 계좌는 라이프넷 기업에 대한 개인의 기여를 기록하고, 또한 라이프넷 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인출도 기록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식품 생산 기업에 참여한 개인은 그의 라이프넷 계좌에 참가 기록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개인이 라이프넷 분배 센터로부터 식품이나 의류 또는 소프트웨어를 받았다면 (분배 센터는 아마도 현재의 식품 협동조합이나 농장의 직판장과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인출도 라이프넷 계좌에 기록될 것이다. (혹자는 이런 계정을 자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용카드 체계와 유사한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라이프넷 계좌의 목적은 한편으로 생산 체계에 대한 개인의 기여와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 시스템을 통한 인출 간에 정확한 균형을 강제하는 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체계에서 생산과 분배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출의 남용을 식별하고, 단념시키고, 예방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개인 계좌를 일정한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면, 동료집단의 압력이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의 전제는 라이프넷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지출 능력이 있고, 분배 가능한 생산물이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넷 체계는 그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 체계 자체가 절약, 알뜰, 그리고 낭비 혐오라는 기풍을 길러야만 작동될 것이다. 라이프넷은 우발상황(자연 재해, 시스템의 국지적 고장)에 유연하고도 신뢰할 수 있게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의 생산물 비축량을 신중하

게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체계의 참가자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그 자원을 아끼고 검약하며 사용해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 체계에 스며들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분업의 기본 문제는 어떤 피드백 메커니즘이 특정 생산물의 부족과 잉여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분배 체계에서 식품이나 음료가 없다면, 사람들이 오로지 고성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대서 살 수는 없다.)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에서는 시장이 이러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저명한 지위를 차지한 신고전학파적 균형 이론이 제시하는 환상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잡한 사회가 계속 유지되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 라이프넷의 목표 중 하나는 화폐의 재분배와 집중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폐의 재분배와 집중이 하이에크적 체계에서는 내재적인데, 하이에크적 체계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 개인이 시장거래에 이해관계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부과하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에 수익을 입금하는 것은 (이러한 판타지의 논리에 따르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의 라이프넷 식품 분배 협동조합은 와인이 부족하고, 볼티모어의 신발 분배 아울렛은 공급과잉인 상태에 처할 수 있다. (라이프넷 소프트웨어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또는 더욱 중요하게는, 사회 전반적으로 식량은 부족하고 의류는 과잉 공급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에게 과잉 생산된 산출물에서 벗어나 저생산된 산출물 쪽으로 이동하라는 신호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의 신호는 부족 부문의 초과 이윤과 과잉 부문의 손실이다.) 이러한 신호는 라이프넷 계좌를 관찰하면서, 줄어드는 와인의 재고와 쌓여가는 신발의 재고에 주목하는 생산자에 의해 간단하게 제공될지도 모른다. 물론 올버니의 신발 생산자가 와인 생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관찰된 부족이나 과잉 재고에 대한 탈중앙집중적 조정은 불안정한 반응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라이프넷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라이프넷 계좌에 기초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쌍방향 컴퓨터 게임을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컴퓨터 게임에서 일종의 가상적 시장은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조정의 불안정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이프넷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과잉공급에 처한 생산물의 생산자가 새로운 [부문의] 생산능력에 대해 거대한 투자를 하는 데 느끼는 주저함(또는 타성)일 것이다. [새로운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지역적 이동이나 여타 사회적 비용을 동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형의 조정은 [그에] 적응하려는 라이프넷 참가자의 동기와 상상력, 의지를 시험할 것이다. 라이프넷은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비교할 때, 간단히 이루기 어려운 한계적 평등(marginal equalities)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적 평등은 정확히도 자본주의적 경쟁이 요구하는 이윤율의 균등화가 함의하는 바다. 라이프넷의 핵심은 최적화가 아니라 [최소 필요의] 충족이다, 즉 사람들이 [적은 산출물로도]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더 많은 삶의 에너지를 쏟게 할 정도로 기능하면 충분할 것이다. 만약 라이프넷이 어떻게 해서든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일 것이다.

4.2 라이프넷의 경계

라이프넷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에 관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자본주의적-상품적 사회적 관계

의 대안이자, 자본주의와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이프넷은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확장(또는 수축)할 수 있다.

개인이라는 수준에서 볼 때, 라이프넷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현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개인은 그의 삶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걸쳐 그의 에너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라이프넷에 쏟을 수 있다. 이는 동료생산의 참가자가 '본업'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라이프넷 참여자가 대체로 라이프넷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은행 계좌도 보유할 것이며, 라이프넷 분배 센터뿐만 아니라 상품에 화폐를 지출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재생산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러한 분할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 분할은] 라이프넷 생산과 자본주의적-상품적 생산 사이의 사회경제의 총적인 분할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라이프넷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굶주리게 될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으로부터] 생산적인 노동력이 철수하고, 라이프넷 분배 체계를 통해서 인간 요구의 대부분이 충족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동전에는 불가피하게 그 다른 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도덕적 해이'인데, 라이프넷 생산에 비례적인 기여는 하지 않고 라이프넷으로부터 소비의 대부분을 인출하는 경우다. 이는 단기적으로, 그들의 사적인 상품[구매] 지출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상품 체계를 효과적으로 보조한다. (마르크스적 분석에 따르면,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는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것인데, 노동자가 그들의 생계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라이프넷에서 인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이프넷과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의 공존은 개인과 사회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안전밸브를 제공할 것이다. 라이프넷 체계가 실행과정에서 작은 결함을 보이면 (말하자면, 분배 체계에서 재화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작은 결함이 나타나면) 개인 수준에서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로 이동함으로써 그러한 결함을 완화할 수 있다. 라이프넷이 수행하는 효과적인 경쟁의 결과로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가 더 축소된다면, 그러한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는 이러한 충격 흡수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이프넷의 분배가 부족 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구입한 상품으로 자체 생산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패턴이 된다면 [라이프넷이] 자멸하겠지만, 이것은 또한 내부적인 자원할당을 조정하라는 라이프넷 정보 신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는 라이프넷 체계를 위한 '최적' 규모가 존재한다고 이론화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최적 규모에서, 높은 생산품질과 더 높은 생활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본 라이프넷 체계의 한계편익이 공급의 불확실성과 자원할당의 비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한계비용과 일치하도록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따를 경우, 라이프넷은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와 거래를 하는 하나의 분리된 경제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라이프넷이 확장하거나 수축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은 그것이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다. 라이프넷의 유사물은 종교기관, 동료생산, 취미집단 등등의 형태로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와 생산과 정말로 공존한다. 동료생산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때 자본주의적-상품적 생산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부분적으로는, 상품 형태가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의 핵심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동료생산이 특히 희귀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개발로 일반화될 수 있느냐는 열린 질문이 존재한다. (희귀질병은 자본주의적 제약회사에 이윤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적 식량생산, 아동과 노인 케어, 치료, 의류, 직물, 중공업, 교통 인프라 시설은 어떤가? 이러한 사례 각각

은 라이프넷 모델의 성공에 상이한 장애물로 나타난다. (그들은 또한 많은 경우에 자본주의적-상품적 모델의 성공에도 장애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존 모델은 라이프넷 기업이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와 교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라이프넷은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자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넷 체계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축적, 관리하고 그에 화폐를 지출해야만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여지는 특히 민감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라이프넷 기업이 상품 체계의 논리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최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넷 체계의 금융자산은 일종의 신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라이프넷이 [생산물의] 이전(transfer)을 통해서 충분한 화폐적 자원을 축적할 수 없다면, 라이프넷은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에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수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역시 라이프넷 모델의 완전성에 자명한 위험을 가한다.

4.3 생애주기와 경제적 안전이라는 쟁점

개인의 관점에서 라이프넷 참여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 자신의 모든 생산적인 에너지를 라이프넷에 바친 사람은 라이프넷의 사회적 관계와 라이프넷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할지 모르지만, 장애와 은퇴의 위험은 어떤가? 라이프넷 생산에는 불가피하게 투자가 수반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생산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저축에 상응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며, 어떻게 투자집단의 개인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최소한 라이프넷 계좌가 세대적 기여와 [그 기여분을] 생산에 사용한 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는 한, 그 계좌는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창조된 판타지라는 영역에서조차, 이러한 쟁점에 직면한 라이프넷 체계가 대안적인 화폐-상품적 회계체계로 타락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라이프넷이 내부 분배 불평등의 발전에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의 대안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서도 주변부에서의 일부 상품화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공존하고 경쟁하는 라이프넷 모델은 또 다른 수준의 위험을 제기하는데, 양 체계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다.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라이프넷 생산 양자는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 네트워크 경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위축되면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5. 결론을 대신하는 질문

라이프넷이라는 판타지는 우리에게 사회주의의 이상에 대해 실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가? 마르크스는 인간 재생산에 필수적인 신진대사(유용한 생산물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의 지출,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그러한 생산물의 소비)와 사회적 관계(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종종 언급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고 밝혀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특수한 형태와 사회적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생산과 재생산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품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라이프넷이나 다른 판본의 사회주의를 본다면, 그것은 점점 더 상품 생산의 왜곡된 판본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익숙한 효과다.

한편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최소한 라이프넷 체계가 재생산에 필요한 인간 요구 전체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만성적이고 보편적인 사용가치 부족 속에서 라이프넷 체계가 신속히 붕괴한다고 예견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떤 대안적 체계도 생산과 재생산을 촉진하는 데 성공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자본주의적-상품적 체계와 매우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적-상품적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사회적 재생산과 동일하다고 단언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라이프넷이라는 판타지가 지닌 한 가지 장점은 사회주의로 이행을 일상적 선택의 누적적 과정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라는 이상이 제기하는 중심적인 질문, 즉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살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강조한다. <끝>

참고자료

Bowles, S. (2004). *Microeconomics: Behavior, Institutions, and 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Devine, P., editor (2002). *Science and Society Special Issue: Building Socialism Theoretically: Alternatives to Capitalism and the Invisible Hand*, volume 66.

Duncan K. Foley (ed.) and Peter S. Albin (1998). *Barriers and Bounds to Rationality: Essays on Economic Complexity and Dynamics in Interactive Syste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Foley, D. K. (2003). *Unholy Trinity: Labor, Capital, and Land in the New Economy*. Routledge, London.

Foley, D. K. (2010). What's wrong with the fundamental existence and welfare theorem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75:115-131.

Leontief, W. (1966). *Input-Output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Mirowski, P. (2002). *Machine Dreams: Economics Becomes a Cyborg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Vanek, J. (1970). *The General Theory of Labour-Managed Market Economie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Wright, E. O. (2010). *Envisioning Real Utopias*. Verso.